

●●● **오정길**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조합 발전 위해 최선을...



▲ 오정길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공약 지키도록 최선을

오 조합장은 조합경영에 있어 자립경영, 자본 확충, 인화단결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자립경영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조기에 이룩하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상황

한국양계농협조합 2대 오정길 조합장 취임식이 지난 7일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외부인사 초청없이 임직원과 이사 등 내부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양계조합은 지난 2003년 9월 서울경기양계조합, 대구경북양계조합, 광주전남양계조합 등 3개 조합이 합병 통합하여 한국양계조합 출범하였으며 이번에 제 2기가 출범하게 되면서 오정길 조합장은 공식적으로 조합장 업무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날 오정길 조합장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한국양계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에 사전대응하기 위해 항상 예측 가능한 경영과 세심한 경영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자기 자본의 확충을 말하며 “경영관리조합에서 벗어나려면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기준을 초과하여야 한다. 특히 자본금 제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본금확충방안

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조합장은 자본확충방안의 예로 이용고배당금의 내부유보 확대, 신규조합원가입, 사업이용에 비례한 단위당 자본적 적립제도들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기본출자금 납입유도에 전 임직원이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과잉 중복시설과 저수익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핵심사업에 집중하거나 자본금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인화단결을 강조하며 지역적인 정서와 문화가 다른 3개조합이 신설합병한 조합이기에 조합의 모든 분들이 앞장서서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창조적인 공론을 찾아서 조합원들에 화합을 도모하고 아울러 조합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며 선거 공약을 이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직원에게 바라며

오정길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사명감, 창의력, 열정, 성실성을 가지고 본업에 임하여 줄 것을 또한 잊지 않았다.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숙명의 원칙으로 알고 다가서야 하며 어떠한 업무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늘 연구하고 개발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오 조합장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조합경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직원에게 승진인사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임을 표명했다. 즉



▲ 오정길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근무연수나 연공서열보다 주어진 업무에 실적 우수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다. 또한 경제사업과 금융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본 조합의 입장에서 더욱 강조되는 점으로 성실하게 생각하고 성실히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을 것이라며 성실성을 강조하였다.

깨끗한 점을 향해

오 조합장은 본인의 인생을 하나의 무한한 일직선으로 본다며 그중에 우리가 일생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을 찍는 것으로 표현했다. 여러 모양의 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점의 크고 작음을 떠나 ‘깨끗하게’ 찍고 가는 것이라는 말로 조합을 이끌어 갈 때 청렴하게 조합을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양계조합의 선봉에 선 오정길 조합장은 “조합장이라는 책무를 무겁게 여기며 겸하한 자세로 조합원의 여망이 헛되지 않는 굵은 땀방울을 흘릴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취임사를 마쳤다. (정리 | 기영훈 기자)